

제 1 교시

국어 영역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둔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⑦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⑧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 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과제 : ‘⑦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 고 할 수 있으므로 ⑦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33. 문맥상 ①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국어 영역

3

문제 풀이 - 1문단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정의를 제시했고, 지식 재산 보호 문제 및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글이 전개될 것이라 예상된다. 먼저 모든 문제를 검토하자.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더 판대한 면이 있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나타난 선지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틀렸다고 해도 된다는 점이다. 고민을 덜 해도 되는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해두면 될 것 같다.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지식 재산'이라는 점으로 이미 언급이 되었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답을 찾을 수 있는 선지를 ○, 그렇지 않은 선지를 ✕라고 표기하겠다)

영업 비밀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2번 선지 또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3, 4, 5번 선지는 1문단의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본문 내 표시된 '디지털세'가 포함된 문단을 읽은 후부터 살펴보면 된다.

SpokesAT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과제 :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보기> 내에 ㉠이 언급되어 있고, ㉠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으므로 ㉠이 포함된 문단을 읽은 후부터 살펴보면 될 것이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A]부분을 읽은 후 풀면 될 것이다. 즉, 본문을 다 읽고 나서 풀면 된다.

33. 문맥상 ①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①가 포함된 문단을 읽고 답을 고르면 될 것이다.

2문단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세와 법인세의 정의를 잘 살펴봐야 하고, 디지털세가 언급이 되었으므로 30번을 살펴보기 시작해야 한다.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디지털세’이고,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고 했으므로 3번 선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있다.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것이 이윤인데, 디지털세의 정의에 따르면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되는 것이 디지털세이므로 2번 선지는 틀렸다. 또한 디지털세의 정의에 의해 5번 선지는 옳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문단

⑦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⑧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로열티의 정의가 나왔고, 법인세를 회피하는 ‘예시’가 나왔다. 또한 ⑦이 나왔으므로 31번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고, ⑧도 나왔으므로 33번 문제의 답을 정하면 된다.

※앞선 비문학 지문 문제 풀이에서 굳이 비문학 문제를 풀 때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예시의 경우에는 다르다. 예시는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돋고자 쓴 것이기 때문에 예시의 흐름 정도는 이해해주어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다만 예시에서 드러나 있는 범위까지만 이해하면 되므로 예시에서 설명하지 않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4번 선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3문단에 나온 예시이므로 4번 선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해당 산업(ICT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에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이 문장에서의 주어가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 중 어떤 국가’이므로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이다.

또한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법인세였으므로 4번 선지도 틀린 선지이다.

SpokesAT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⑨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과제: ‘⑦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⑨과 고 할 수 있으므로 ⑦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

⑦에 해당하는 내용이 3문단의 예시이고, 예시를 그대로 사용해본다면 법인세율이 높은 B국의 자회사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A국의 자회사로 로열티를 지급하여 B국의 이윤을 최소화한다고 했다. 이는 가설의 내용과도 비슷해 보인다. 따라서 ⑦을

근거로 쓰기 위해서는 ⑨에 해당하는 내용이 ⑦의 예시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도출하지 못했을지라도, 천천히 선지를 보면서 참 거짓을 판단해보는 방법도 있다.

본문에서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과 법인세율의 비례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옳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예시만 보더라도 로열티는 법인세율이 낮은 자회사에 지급되므로 2번 선지는 틀렸다.

앞서 2문단에 명시된 법인세의 정의를 참고하면,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것이 이윤이었다. (수입 – 제반비용 = 이윤)

가설에서는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고 했으므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높다. 즉,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와 같다. 따라서 3번 선지는 틀렸다.

4번 선지가 3문단의 예시와 비슷한 내용인데, 로열티를 통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의 이윤을 최소화한다고 했다. 따라서 4번 선지가 옳다고 볼 수 있다.

가설의 내용이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고 했다. 따라서 본사에 대한 설명과 상관없이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라는 5번 선지의 내용과 정반대이므로 5번 선지는 틀렸다.

따라서 답은 4번.

4문단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 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것을 시사한다.

SpokesAI

마지막 문단이자 [A] 이므로 남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전부 찾으면 된다. 또한 ‘비례관계’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으므로 <보기>문제에 사용될 여지가 있기에 유심히 보아야 한다. 간단하게 정리해 두어도 유용하다.

33. 문맥상 ⑨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

B국의 자회사의 이윤을 줄여 법인세를 줄임으로써 Z사가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내용이므로 1번, 4번, 5번 선지는 옳다고 할 수 있다.(수입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윤을 줄인다는 것은 제반 비용을 늘린다는 것-로열티를 통해-과 비슷한 내용이므로)

또한 로열티를 B사에서 A사에 지급하므로 A사의 수입 및 이윤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2번 선지도 옳다.

정답은 3번.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이론적으로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일 때라고 나와있으므로 5번 선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답은 2번.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

디지털세와 지식 재산 보호 정도의 상관관계는 명시되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답은 명확히 5번.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SpokesAI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

4문단에 나온 ‘비례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지식 재산 보호가 높을수록 접근 비용(소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이 증가하고,
지식 재산 보호가 낮을수록 유인 비용(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는 경우)이 증가하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에서는(S국은 소득이 낮은 국가이므로 해당 정보만 정리해본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특허 보호가 약하다.
또한 S국에서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고 했으므로 특허 보호 정책 =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이라고 두고 비례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1번 선지의 경우 4문단의 첫 문장에서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는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라고 했으므로 옳은 내용이다.

2번 선지의 경우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유인 비용이 높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3번 선지의 경우,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출 때 유인 비용이 증가하는데 3번 선지에서는 접근 비용이 높아진다고 했으므로 틀린 내용이다.

S국의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에 해당하므로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특히 보호가 약해질 것이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히 보호 정도가 강해질 것이므로 S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지다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4번 선지는 옳다.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접근 비용이 증가하고 유인 비용은 감소하므로 5번 선지 또한 옳다.

따라서 답은 3번.